래서 석림은 상투를 자르고도 부친이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에 <조끔도 서운하지가 않었다>(443). 정신의 방향이 문명 개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석림은 아버지의 권위를 대체할 다른 이념이나 가치를 선택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父子 사이의 계보적 갈등이 다른 작품처럼 현저하지 않다. 유선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몰락하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아들에 대해 아비의 권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들 부자는 정신적인 연속성을 갖지만 개화라고 하는 가족 외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는 점에서 가족의 상대적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재산의 연속성과 이동하는 욕망

『대하』에서 박성권의 가족 역시 부계친의 남성 중심이다. 그런데 박성권은 <적자나 서자를 그대지 차별하지 않>(74)음으로써 형걸과 그의 모친 윤씨를 가족 내에 통합시킨다. 다른 자식들보다 유전적으로 유사한 형걸이에게 박진사는 <희망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사실>(171)이다. 또 기마전에서 맹활약하는 형걸을 보고 박성권은 <스무 살 전후의 자기의 생활>을 떠올리고 아비로서의 자부심과 만족을 느낀다(256). 이런 통합성에 의해 형걸은 가족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다. 항렬에 따라 이름을 얻었을 때, <속으로 제일 반가워 한 것은, 셋채는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형식이를 셋채라고 불르는데 반감을 갖이고 있던>(20) 형걸이다. 이름을 얻고 형걸이 기뻐하는 것은 명명하는 부의 권위에 편입되고 이로써 그의 사회적 존재에 정당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걸이 서자로서의 차별의식 때문에 가출하므로 『대하』에서 가족의 통합성은 훼손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박성권에게 중요한 것은 연속성(지속성)이다. 그런데 박성권 집안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은 선조의 사상이나 정신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 맛아들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시킨 후엔 별반 신식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 그는 집을 물려 지킬 장남이니, 그만 공부면 충분하다 하얐다. 돈노이하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집안 일 전체를 감독하고, 사람을 부리는 재주만 배워 두면 그만이라 하얐다. (25)

<술은 취하야서도 돈과 밭과 집안 가도와 자식들은 잊지>(24) 않는 것처럼, 박성권은 집안을 물려 지킬 장남에게 가산권과 가독권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가족의 가계 계승자에게 제사권이 강조된 점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부친 순일이 객사했을 때, 남은 가족들은 안도하고 다행(155)스럽게 여길 정도다. 물론 상속자로서 가업과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성숙할 수 있을 것인지 미지수이긴 하나, 형준은 <집안을 계승할 책임이 있는 종자(宗子)>(129)로서 가업과 재산을 계승할 것이다. 여기서 박성권에게 가산이 더욱 중요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침없이 흐르는 비류강의 강물처럼, 재산은 가계의 연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대하』에서 서자 형걸에 대한 작가의 의도는 그를 신분제도와 적서차별에 반역하여 전통파괴자, 가계의 이단자, 시대정신의 구현자[53]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형걸의 반전통, 반계보적 행위는 무엇인가? 그는 문우성 교사의 다음과 같은 말에 주목한다.

> 자상한 형걸이의 설명과, 그 설명 속에 얼키고 설킨,형걸이와 형걸이 모친 윤씨의 고민을 낯낯이 듣고, 문 교사는 신분(身分)의 차별이나, 적서(嫡庶)의 구별 관념이나가, 모다 어떤 시대의 찍꺽인가를 소상하니 가르키고, 지금 문명하는 시대에는 그런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않될 것을 말하였다. 이여서 그는 비복(婢僕)을 해방할 것과, 미신(迷信)을 타파할 것과, 조혼(早婚)사상을 물리칠 것과, 생활(生活) 습속(習俗)을 개량할 것을 말하고, 이것을 위하야 몸을 반힘이 청년 남아의 할 것이라 가르키였다. 형걸이는 문 교사의 이야기를 알어들을 대목도 있고, 터무니 무슨 곡절인지 영문인지를 몰으고 넘기는 대목도 많었으나, 문 교사의 하는 말은 모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잠잠히 듣고 있을 뿐이였다. (178)

여기서 형걸이 이해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자명하지 않고, 또 옳은 말이라 생각한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의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가 삭발을 하거나 조혼이라는 <완고한 풍습에 희생이 되지 않으리라>(266) 결심한 것이 결정적인 반항일 수 없다[54]. 또 그와 그의 모친이 서자와 서모로서 받아온

53) <작품 제작과정>(『조광』, 39.6), p.154, <작중인물지>, p.202.
54) 조혼을 형걸이 부친에 반발하는 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용

차별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간단히 요약 진술될 뿐이다. 첩자식이라고 수모사는 일이 없느냐는 쌍네의 말도 꿈 속(78)의 일이며, 자신이 서자이기 때문에 동갑인 형선이 <자기보다 소중한 대우>(64)를 받는다는 것도 적서차별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55].

형걸의 가장 현저한 반계보적 행위는 성적 욕망의 무휴식적 이동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여종 쌍네를 욕망 대상으로 삼는 한편, 형걸은 쌍네를 형수인 정보부로 착시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기생 부용이와 관계한다. 그런데 이들 여성과 가족의 다른 성원이 동시에 연루된다. 즉 <형걸 - 쌍네 - 형준>, <형걸 - 정보부 - 형선>, <형걸 - 부용 - 박성권>의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대하』는 마치 父子, 형제가 같은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처럼 보인다.

형걸의 이동하는 욕망은 타자를 억압하거나 타자의 욕망을 부정하는 자아 우위의 욕망이다. 그에게 쌍네는 남의 아내지만 자기가 어떻게도 할 수 있는 여종에 불과하다(77,93). 이는 쌍네를 일종의 재산처럼 여기는 주인의 입장, 즉 형걸에게 자기인식을 가능하게 할 타자로서의 역할(남의 아내)을 억압하고 타인의 성을 지배하는 자아 우위의 입장이다. 따라서 쌍네에게 형걸이 <상전의 도령님>(109)인 것처럼, 형걸과 쌍네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다. 이는 부용을 <아모개나 꺾을 수 있는 노류장화>(265)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같은 자아 우위로서의 욕망 이동은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가족적 사회적 영향력을 벗어나 자기를 모색하는 자기생식적인 행동이 된다. 왜냐하면

이가 그를 결혼한 새서방으로 알고 있으리라(265) 생각하고, 19세임에도 미장가인 그를 문우성은 <상당히 개명한 신식 집안>(178)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갑오개혁에서 조혼을 금지하면서 남자의 연령을 20세, 여자의 연령을 16로 한 것으로 미루어 형걸의 경우를 반드시 조혼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서울대출판부, 1980), p.447.

55) 형걸의 행위에서 서자로서의 주체 자각을 강조하거나 서출이라는 신분문제와 갈등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한 기존 연구는 작가 자신의 의미부여에 영향을 받고 있다. 박헌호는 생일이 빠른 형걸보다 형선이 먼저 결혼하는 데서 반역을 시도했다고 하나, 실제로 생일이 한 달 빠른 것은 형선이다. 송하춘은 서출이라는 신분 때문에 좋아하던 보부와 결혼할 수 없었다고 하나 본문에 따르면, 결혼식 때까지 형걸은 정보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박헌호, 같은 글, pp.249-250. 송하춘, <1930년대 후기 소설 논의와 실제에 관한 연구>(『세계의 문학』,1990 가을호), p.213.

성적 경쟁은 경쟁자들 사이의 엄연한 차이를 없앰으로써 가족적 규범을 위반하고, 궁극적으로 정태적인 사회제도에 대한 자기우월 혹은 자기생식의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56]. 그가 구현하려는 시대정신 혹은 새로운 초자아의 내용은 여기에서 찾아질 것이다.

(2) 새로운 권위로의 이동

1) 예술적 편향과 사적 삶

『탑』의 우길이 추구하는 권위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멸을 넘어 젊은 세대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길은 이순이를 구하는 것이 <오빠로서의 의무>만이 아니라 커다란 인간악 앞에 떨고 있는 약자를 위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거룩한 일>(406)이라고 생각한다. 『탑』에서 이 부분은 사실 돌연한 느낌을 준다. 꼭 단서를 찾자면 상제의 아이를 낳고 비참하게 죽어간 여종 게섬이에 대한 정서적 관련을 들 수 있다.

> 우길은 부지중 두 손으로 제 머리를 움켜 쥐었다.
>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꼭 집어 말할 수 없으나 심령의 부르지즘이라 할까 그 순간,
> "아아 주검!"
> 하는 소리가 정녕 그의 머리에 울려 왔다.
> 우길은 다시 두 번 그것을 드러다 볼 용기가 없었다. 또 볼 필요도 없었다. 더 보지 않아도 어두운 밤에 횃불같이 머리에 환하다.
> 그가 세상에 나서 이제껏 본 것 가운데에는 이 광경처럼 똑똑히 눈에 밟히는 것은 다시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하여도 그 그림자를 머리에서 지울 수는 없었다. (314)

게섬이의 참혹한 최후는 어린 영혼에 통렬한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통학교 사년 동안 우길은 <특히 새로운 놀람이나 기쁨에 한 번 어

56) 이런 자기생식은 사회에 대해 자아의 우위를 강조함으로써 변화를 부정하는 정태적 사회와 불화하는 적극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변화를 부정하는 전자본제적 사회의 정태성과 맞선다는 의미에서 자기생식은 소설의 가장 진보적 특질이라 말해진다. J. M. 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Univ. of Minnesota Press, 1984), pp.247-248 참조.

린 눈이 크게 띄여진 일은 없>고, 게섬이와 상제들을 통해 얻은 <'인간공부'>에 비하면 글공부란 무의미했던 것이다 (316). 그래서 그는 서울에서의 학업에도 이렇다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강렬한 체험이 영혼에 뿌리 박혀 있어 글공부가 인간공부보다 의미가 없다면, 우길은 자신의 체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외부세계를 향한 모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게섬이나 이순이에 대한 우길의 의식은 인간의 내적 가치, 즉 만인공유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추상적 인식이지 계급현실의 경험과 이에 근거한 실천적 결단에 의한 사회적 연속성의 획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57].

인간의 내적 가치에 대한 추상적 인식은 우길에게 내면화, 내성화의 잠재적 계기가 된다. 그의 내성화는 정순에 대한 일방적 사랑으로 더욱 과격해진다. 우길은 자신이 <운명의 신>을 찾아 헤매는 <지상의 순례자>(387)라고 느끼고, <저만 혼자 사는 세계가 절실이 필요>(383)한 고독과 소외를 경험한다. 혼자 있고 싶음의 감정은 그를 외부를 향한 모험보다 내부의 심정적 깊이로 도피하게 만들고 이것이 예술로의 경사를 조장하게 된다. 서울 유학은 이후 우길은 처음엔 영화에 깊이 몰두하고 그림에 매료되다가 마침내 소설에 탐닉하게 된다.

> 상도는 점점 극장으로 다니는 도수가 떠졌다. 그렇게 좋던 활동사진이 어쩐지 연심 싫여졌다. 그것보다는 소설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활동사진이 눈을 질겁게 하는 대신 소설은 맘을 질겁게 하였다. 질겁다니보다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는 도무지 제 몸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도록 소

57) 계보의 위기는 결국 가족내 인간관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두 종류의 연속성, 즉 인류 일반의 운명이나 죽음과 재생의 제의적 모멘트를 드러내는 신화적 연속성과 사회 불의에 저항하거나 공동 대의에 있어 연대를 추구하거나 정치적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 연속성을 추구한다고 말해진다. J. Gilvert, 같은 글, pp.131-134 참조. 물론 우길이 게섬이와 같은 계층이 견디어야 할 삶의 질곡과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과의 강한 계급적 연대의식을 지닐 수도 있다. 단행본에 삭제된 신문연재에서 사상운동으로 파검된 점으로 볼 때, 그는 사회적 연속성을 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독자적이고 사적인 삶의 추구는 어떤 공동체나 집단주의도 거부하기 때문에, 우길의 사상 선택 역시 개인의 지적 도덕적 정서적 변화로 보아야 한다. 작품 내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돌연한 변화 자체가 그의 행동이 사회적 제 힘들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설이 좋았다. 어떤 때는 안달이 나도록 흥분되고 그 어떤 때는 천길 물 속에 용궁을 쌓고 들어 앉은 것같이 안윽하였다. (377)

의학, 법률, 공업이 자기의 지향점이 아니라면(364), 위 인용으로 볼 때 우길은 대체로 예술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예술적 과업을 추구할 가능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자가 앞 시대나 동시대의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필요로 하는 공조 양식[58]이라면, 후자는 대체로 개인의 창의성이 강조되는 외로운 작업이다. 전자의 경우 홀로 연구에 몰두한다 해도, 그는 언제나 타인의 연구 성과 위에서 작업하며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부지불식간에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비록 공동 작업을 할 때라도, 그는 개인이 주도하는 삶을 추구한다[59].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우길의 지향은 개인의 감정교육, 내면화 등 개인의 독자적 삶과 관계된다. 이는 억압적인 봉건 권위와 합리적인 계산능력과 훈련을 중시하는 부르조아의 도구적 합리주의와 대조된다. 그러나 동시에 우길의 지향은 공적 세계 내에서 방해받지 않는 사적 공간과 삶의 추구로 사유재산제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그가 <자기 집의 몰락>보다 황정경의 집에 기식함으로써 <부자유한 곳에 제 몸을 둔다는 것>이 더 께름한 (375)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2) 식민주의의 문화적 편견

58) 과학, 수학, 철학 등 인식적 이론적 작업은 타인의 업적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선임 연구자와 그 뒤의 연구자는 릴레이를 하는 셈이다. 특히 과학은 목적을 공유하고 과업을 나누어 갖는 상호주관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일상의 노동세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D. Carr, Time, Narrative and History(Indiana Univ. Press, 1986), pp.129-130 참조.

59) 사업의 협오, 내성, 예술적 감수성, 짝짓기나 성적 열정은 개인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삶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런 인물은 의무, 질서, 父系생식 등 이른바 계보적 엄숙성을 파괴한다고 본다. P. D. Tobib, 같은 책, pp.68-71 참조. 따라서 상속원리와 예술관념, 예술적 과업은 서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실패를 다룬 교양소설에서 후손은 예술적 과업에 몰두함으로써 아비를 배제하거나 아비를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 Minden, <The Place of Inheritance in the Bildungsroman>, J. Hardin(ed.), Reflection and Action(Univ. of South Carolina Press,1981), pp.288-292 참조.

『봄』은 석림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만을 강조한다. 『봄』이라는 제목은 석림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부친이 서울서 가지고 온 새롭고 신기한 물건에 매료되어 서울을 동경하고(78-79), 서울서 온 친구 장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서 서울을 향한 <황홀한 희망의 날개>(378)를 펼친다. <자고로 크나 적으나 무슨일을 할사람은 하나도 제집안에만 붙어있지는 않었다>(338)는 것이다. 그래서 석림은 학교에 입학한 뒤 <비로소 자기의 앞길이 열리는것만 같>아(367), <공부에 대한 새희망>(530)을 갖는다. 이 새로운 희망은 물론 신문명을 향한 것이지만 그 지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문제된다. 유선달이 얌전한 글방아이와 달리 학도는 무엇보다 활발해야 한다고 할 때(369), 그는 아들에게 투쟁적인 대타관계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봄』에서는 체육,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고루한 양반들이 체육을 작난이요 밥지랄이나 비난할 때, 신참위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운동은 쓸데없는 작난도 아니고 밥지랄도 안입니다. 대저 교육을 지덕체(智德體)삼종으로,난우는데 체육을 잘 받어야만 문명인이 될수있는것이올시다. 우선 군대가 강해야만 나라가 강할것인데 군대가 강하자면 국민이 체육을 잘 받어야만 될것이 안입니까.(459-460)

여기서 신참위는 무관학교 출신답게 운동을 민족의 위대함이나 군사적 성공에 근본되는 원천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도 제국주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체육을 멸시하는 것은 비문명이라는 것, 따라서 비문명국은 문명국의 강한 군대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식학문의 정신을 남먼저 수입했기 때문에 총 칼 대포를 예리한 무기로 만들어 러시아를 이겼다는 유선달의 논리처럼(463), 신참위의 주장은 부국강병에 대한 주체적 시각이라기보다 강한 문명국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런 까닭에 신참위와 유선달은 개화를 아름다운 목표로 보고 무지몽매한 국민을 계몽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교육을 중시한 것이며 유림세력을 완고한 인습의 상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60]. 그래서 격검, 유도, 철봉에 능한 일본인 중산선생은 <가장 신문명

60) 말하자면 그들에겐 반제 자주독립의 의식보다 반봉건 문명개화의 의욕이 더

의 공기를 흡수한 지식꾼>(383)으로서 석림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그 결과 석림은 세상에 대해 그의 부친과 다를 바 없는 정태적 인식을 보인다.

> 그것은 마치 암흑한 딴 세상에 사는 유령들 같았다. 그들의 생활은 깊이 드려다볼수록 모든 층계에 회색의 장막이 둘러씌였다. 어디를 보든지 명랑하고, 생기있는 구석은 안보인다. 그것은 있는사람도 그렇고, 없는사람도 그렇게 보이었다. 그속에는 모든것이 묵고 곰팡쓸고, 몬지가 케케로 앉인 굴속의 생활과 같다.(…중략…) 그속에서 먹고자고 울고 웃고 늙고 앓고 죽고, 자식을나서 죽이고, 또 낳고하는……주야장천 밤낮 그짓을 되푸리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무슨 의미로 살려는 것인가. 그것은 부자나 빈자나 한결같이 인생의 고해를 속절없이 허위대는것만 같이 보인다. (547-548)

무지몽매하고 정체되고 혼돈스럽고 암흑한 세상이란 과학적으로 수량화되지 않은 야만, 즉 문화의 결여태와 다르지 않다. 신화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의 정도를 알 수 있다 하고 우리 신화를 타파해야 할 미신으로 간주(546)하는 신선생처럼, 자기 것을 문화적 결여태로 파악하는 석림에게 타자문화는 그 완성태로 이해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편견은 우리 문화를 문명의 변두리에 있는 본능적 무방향의 것으로 이해하고, 문명의 힘으로 지도해야 할 미개지로 보기 때문에, 석림의 신문명지향은 그 이면에서 식민주의자의 담론[61]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3) 욕망관리와 부르주아에 대한 관념적 비판

존재의 사회적 규정에 반발한 서자 형걸은 작품 결미에서 가출을 결심하고 문우성 교사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그가 구현하려는 시대정신이 자명하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문명개화의 문제에 있어 유선달은 유림세력에게 근대수용이 지체된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과거에 대한 부정일변도로 근대를 지향하는 전통단절론자에 가깝다. 장성만, <개항기의 한국 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4), p.294.

61) 『봄』은 당대의 삶을 문명의 특질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당대의 현실을 주인없는 야만상태의 것으로 문명 제도의 질서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식민주의자의 계급 및 종족담론을 닮게 된다. J. Dollimore & A. Sinfield(eds.), Political Shakespeare (Manchester Univ. Press, 1985), pp.50-57 참조.

지 않기 때문에, 그의 가출에 지나치게 선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형걸의 성적 욕망은 장남 형준이 쌍네를 위협하면서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형걸은 적자들의 방식[62]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래서 박성권은 비복의 방에 출입하는 형걸이 밉지 않고 또 큰 변이라도 난 것처럼 서둘러 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147,148). 이런 의미에서 이들 가족은 대상을 향한 지침없는 욕망을 지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옛 질서를 궤멸시키는 부르조아의 활력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핀대로 신흥부르주아 박참봉이야말로 옛 질서나 권위에 반하지 않는가. 따라서 전통질서와의 관련에 있어 박성권은 서자의 위치에 있으며, 집안 내에서 서자인 형걸의 일탈적 행위는 성격상 부친과 동궤에 있다[63]. 그러나 이 욕망과 그로 인한 위협적 요소가 교묘하게 관리, 제거된다는 데에 『대하』의 특이점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정보부는 형걸이에게 이미 형수된 자이다. 그녀는 형걸에 대해 혼전에 지녔던 연모의 정을 죄스럽고 망칙하게 여기고 간음 당한 것 같은 <자책>의 회오리(48-49)에 빠진다. 관계를 요구하는 박성권에게 부용은 <천륜>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부용에게 형걸은 <성스러운 표정>을 발견하고 거의 <종교적인 정신적> 분위기를 느낀다.(275) 여기서 형걸은 더이상 부용에 대한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성이 접촉불가의 존재인 것처럼, 형걸은 이미 아버지가 다녀간 그녀의 방을 들어갈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에게서 발견하는 종교적 분위기는 바로 외디푸스의 파국을 해결하는 아비의 법칙인 것이다. 즉 형준에 대한 쌍네의 말처럼 <인륜>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부/자, 형/제는 최종적으로 성적 질서 속에 놓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하』에서 성적 가족적 혼란과 긴장은 일시적인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가족플롯의 메카니즘에 의해 해소[64]된다고 할 수 있다.

---

62) 박헌호, 같은 글, p.251.

63) 안함광은 형걸이 부친에게서 과단성과 정열의 무억제성까지 물려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함광, <문학의 주장과 실험의 세계>,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VIII(태학사, 1990), p.216.

64)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성적 관계가 질서 속에 놓인다는 의미에서 아버지

둘째, 박성권의 승리를 암시한 대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냉혹하게 휩쓸어 가는, 부르주아의 비인격적인 사회관계, 괴물스런 탐욕을 암시한다. 거부할 수 없는 듯한 이 흐름은 다음과 같은 진술로 비판된다고 할 수 있다.

> 길을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형걸이는, 그것으로 쌍네와의 관계는 짧은 한 토막의 삽화(揷話)처럼, 영구히 그의 청춘의 한 모퉁이에 잠겨 버리고 말 것이오, 쌍네 역시 기구한 일생에 한 점 색채를 점 찍은 채, 그대로 평범한 생애의 가운데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기회가 되고 말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커다란 비류강의 강물같을런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267)

쌍네와의 관계에 대한 형걸의 태도는 앞서 인용된, 흐르는 비류강을 보고 만족해 하는 박성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쌍네에게 전생명적인 것을 삶의 탁류 속에 묻혀질 한 토막 삽화로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관계일 수 없다. 형걸의 냉담함에 쌍네가 보이는 절망은 이동하는 욕망이 현실적으로 타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예증한다. 이에 <회오와 자책에 섞인 뉘우침>(268)이 형걸에게 성숙한 책임감을 일깨운다. 그러나 형걸의 통렬한 죄의식도 쌍네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의 이동하는 욕망에 대한 윤리적 관념적 반성이다. 왜냐하면 그가 쌍네에 대해 주인/노예의 비정한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역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일탈적 행동이 적자들의 방식인 점이다. 이제 그 행위를 반성할 때, 그는 적자와 서자라는 차별을 승인한 셈이다. 형걸은 형선이와 동갑이다. 계보상 동갑이란 쌍둥이와 다르지 않다. 그들이 성격이나 생김새에 있어 차이(44, 46)가 있다 해도 그것이 가족 내적 질서를 유지할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또 같은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도 가족 내적 차이를 용해시킨다. 이처럼 가족간에 유사성이 증대할 때, 차이 혹은 차별에 근거한 집은 분열, 해체, 적대적 갈등의 위기에 놓인다[65]. 따라서 형걸의 욕

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C. Prendergast, The Order of Mimesis (Cambridge Univ. Press, 1988), p.221.

65) 쌍둥이처럼 유사성에 의해 차이가 사라질 때, 구성원은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왕위, 부의 유산, 여자 등)에 의해 분열되고 폭력적인 갈등에 빠진다. R. Girard, Violence and the Sacred(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7),

망 반성과 가출은 서자인 그가 계보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오히려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겠다. 즉 이동하는 욕망의 반계보적 반사회적 성격이 내적 반성의 윤리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66]. 이로 볼 때, 『대하』는 이동하는 무분별한 욕망을 가족을 준거로 하여 방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 속에 이루어진 결심, 그것은 막연>(275)한 그의 가출은 아비나 억압된 욕망을 대신할 새로운 이념체계의 선택[67]이라기보다 탐욕적으로 이동하는 부르주아의 욕망에 관한 윤리적 관념적 비판일 것이다.

4. 30년대 가족사소설의 이념적 지향과 그 한계

(1) 이원대립적 사고 형식과 이념소로서의 진보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사소설은 아비세대의 몰락이나 상승을 그리면서 그 세대에 반발, 저항하는 자식세대를 대립적으로 병치시키고 있다. 기존 연구는 아비세대의 타락성과 몰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몰락 여부나 그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탑』의 박진사 가계가 가족 내부 및 외부로부터 해체 위협을 받는다면, 『봄』의 경우 외부 위협은 강화되고 내부 위협은 약화되어 있다. 이들과 달리 『대하』의 박성권은 가족 내부에 해체의 위험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비세대가 대체로 부정적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의 경우 연속성이, 『봄』의 경우 권위가, 『대하』의 경우 연속성이 최종적으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음을 보았다.

---

pp.57-64 참조.

66) 이는 쌍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녀가 <종된 몸>으로 상전 도령을 사모하는 것은 출신성분상 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질서에서 일탈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행동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하』에서는 이 정치적 가능성이 봉쇄된다. 마음에 드는 남편이면 자신이나 자식이 평생을 종살이를 해도 좋다고 할 때(107), 쌍네의 사랑은 정치적 계급적인 문제에서 미학의 문제로 전환된다.

67) 조남현은 문우성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을 들어 이데올로기의 싹을 품고 떠난다고 하나 『대하』에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조남현, 같은 글, pp.230-231.

물론 부자간의 반목과 대립도 심각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세대의 파탄이나 가족의 해체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럴 때, 부세대의 타락한 혈통주의도 민족정체성의 유지로 옹호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부자간의 갈등에서 주목할 것은 다른 데 있다. 가계는 선대와 후대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반복과 차이를 동시에 지닌 역설적인 존재이다[68]. 문제는 작품이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느냐에 있다. 본고가 살펴본 가족사소설은 후자, 즉 가족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아들세대의 반역적인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 『봄』의 석림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아들세대는 전통적인 질서와 그 관습적 허위, 억압적인 권위에 저항하면서 주체적인 인간의 자유를 꿈꾼다. 그들은 아비나 아비세대에 속하는 삶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시대의 역사적 특수성을 구현하고, 이로써 자신의 독자적인 운명과 새로움을 드러낸다. 그들은 아비의 반복(재생산, 동일성)보다 차이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 차이야말로 아비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들 父子의 대립조차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탑』의 우길이 아비세대의 역사를 뛰어넘으려 한 것은 바로 아비세대의 삶과 사상을 물려받은, 그러나 극복해야 될 역사로 여김을 입증한다. 타락한 아비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려는 아들이 결과한 것이다.

부자의 관계에서 동일성보다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영원회귀의 순환을 벗어나 현실세계에 논리적 인과론적으로 접근하는 합리주의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인간의 삶을 목적지향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그 목적성은 아들세대를 통해 구현되거나 암시된다. 따라서 계보의 반복성에 집착하는 아비세대와 달리, 차별성을 강조한 아들세대의 반계보적 일탈은 모더니티에의 한 반응이라 할 수 있다(석림의 경우 차별성이 덜 강조되어 있으나, 선

68) 가계는 선조와 후손간의 반복(유사, 회귀, 불변, 보편, 항수)가능성과 차이(독창, 독특, 혁명성, 우발성, 새로움, 변수)를 지닌다. 따라서 세대의 갈등과 투쟁을 포함한다. E. W. Said, <on Repetition>, A. Fletcher(ed.), The Literature of Fact(Columbia Univ. Press, 1976), pp.144. 그렇기 때문에 헤겔도 부자간의 싸움에 주인과 노예의 상호인정 투쟁의 원형이 있어도 부자간의 차이, 세대차이는 결코 극복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을 진정한 공동체에 미달한다고 본다. D. Carr, 같은 책, pp. 140-141 참조. 따라서 가계는 통제와 일탈의 긴장과 종합이라 할 수 있다.

대의 가계전통과 동떨어진 가족외적 가치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그것은 부세대의 주먹구구식의 자의적 전제적 감정과 전통의 족쇄로부터의 벗어남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봉건적(전통적, 비합리적)인 것과 근대적(문명적, 합리적)인 것의 대결을 암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봉건과 근대의 이원대립성은 가족사소설에 나타난 이념적 사고의 궁극적 형식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아들세대가 매개하는 이념소[69]를 새것 혹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위계질서의 상실이나 가치체계의 변화가 아비세대와 달리 파국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회로 파악된다는 의미에서 아들세대에게 새것, 진보(근대, 문명)가 가치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하겠다.

30년대 후반기 가족사소설이 가치개념으로서의 새것을 이념소로 한 것은 일제 군국파시즘의 강화된 억압에 맞선 소설적 방법이라 여겨진다. 이 방법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 가족사소설은 서사불가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다. 30년대 후반에 들면서 카프작가는 계급집단주의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까지 청산해야 한다는 상황의 강제를 받는다. 따라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는 소설의 기본 구도 자체가 설정될 수 없는, 서사불가능에 직면한다. 이를 돌파하려는 노력의 일단이 장편소설개조론으로 나타났으며, 그 논의를 통해 작가들은 父子의 대립구도를 통해 서사가능성을 탐지한 것으로 보인다[70].

다른 한편, 가족사소설은 압도적인 권위를 대표하는 아비세대에 대한 대

---

69) 이념소 ideologeme는 개별 텍스트의 발화가 아니라 공시적으로 파악된 집단적 담론 행위의 최소단위이다. 이념소는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억압하면서 소망이나 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일차적으로 이념소를 아들의 주장을 아비세대의 주장과 분리시키는 식별가능한 최소의 담론 단위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집단과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다.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p.76 참조.

70) 장편소설 논의를 통해 김남천, 임화 등은 소설이 근대 사회의 산물이라는 것, 따라서 소설은 공동체의 운명보다 개인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장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러나 파시즘의 강화와 함께 개인주의조차 실현불가능한 이상이 될 때, 작가들은 내면심리를 탐구하거나 파편적 현상에 매몰되는 등 장편소설의 붕괴를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사소설은 작가에게 장편소설의 활로를 찾는 중요한 단서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졸고,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인제논총』 9권 2호, 1993) 참조.

항을 통해 半봉건적 자본제의 식민지 통치체제에 저항으로 이해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비합리적인 파시즘을 돌파하기 위해 우의적으로 아들세대를 불합리한 아비세대와 대결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통치체제의 모순을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봉건과 근대라는 이념적 사고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사소설은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한다고 하겠다.

(2) 가족사소설의 곤경과 억압된 목소리

그러면 이런 상상적 서사화 과정에는 어떤 억압이 작용하고 무엇이 감추어지며, 왜곡되고 있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사실 미완이라 할 이들 가족사소설에서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 이들 작가의 과거 경력에 근거하여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작품에 주어진 작은 단서를 뒤집어 읽으면, 억압된 메세지의 복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비세대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거나 상승한다. 『탑』의 박진사는 전통이데올로기를 근본에서 회의하지 않는 봉건적 가족이기주의자로 금권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신흥자본가에게 굴복한다. 『봄』의 유선달은 봉건사상과 개화사상에 동시에 끌리고 반발하는 과도기적 인물로 개인의 무한한 욕망과 무차별적인 경쟁을 자극하는 근대적 개인주의에 패배한다. 『대하』의 박성권은 전근대적 사회를 뚫고 금권을 통해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한다. 그런데 이들의 상승이나 몰락에 중요한 매개장치로 채권 채무관계가 강조되어 있어 주목된다. 박진사와 유선달은 박성권과 같은 신흥자본가에게 돈을 빌어 채무자가 되고, 박성권은 고리대를 통해 박리균 형제와 같은 낡은 의식의 소유자를 굴복시키는 채권자가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화폐관계는 경제적 생존 조건에 근거한 제 계급간의 적대관계를 나타내지만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계급투쟁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대립은 생산관계 혹은 불평등한 사회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시장경제 속에서 소유하고 소비할 보수를 획득하고 분배하는 기회, 조건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가족사소설에서 이들 작가는 맑시즘적 인식 틀을 버리고 베버적인 계층론으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다[71]. 이들 작가

가 구카프의 작가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군국파시즘의 폭력 아래에서 더이상 부르조아 대 프롤레타리아라는 이전의 대결구도가 불가능함을 체감하였다. 이런 대결의 상상적 대안이 가족 내적 대결의 형태로 드러났고, 그 서사과정에서 맑시즘적 인식 틀을 억압하고 현실을 인식할 사유의 최종 지평으로 베버주의를 선택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인식의 틀이 변화된 상태에서 아비세대 혹은 전통적 권위에 반역하고 진보(새것)의 이념축으로 열정을 이동할 때, 아들세대는 어떤 계급 혹은 집단의 목소리를 매개하는가? 도전하는 아들세대가 생물학적 아비를 대체한 이념적 아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들 작품의 결말을 보면, 아들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무엇을 깨닫고 이전의 태도나 행동을 바꾼다. 『탑』의 우길은 예술적인 것으로의 편향과 함께 내성화되고 있다. 이는 그가 사회와의 교섭을 중단하고 영혼의 안식처나 피난처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예술적 이상은 반사회적인 개인적 삶의 꿈이며, 모든 권위주의 집단주의의 전통과 대립하는 개인의 정신적 고양이나 상승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길의 지향은 예술경험을 통해 변화를 부정하는 전근대적 관습과 도구적 이성주의를 벗어나 인간 계몽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미적 전략일 수 있다[72]. 『봄』의 석림에게는 어떤 계층과의 인간적 연대도 고려되어 있지

---

71) 전자는 생산과 관련된 계급관계를 중시하고 후자는 생활양식, 소유와 소비에 관련된 계층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후자의 입장에서 직업이나 시장에의 접근능력은 생산수단으로서의 재산소유, 교육적 기술적 자격소유, 육체적 노동력 소유 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함에 있어 전자는 경제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이동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 생산관계를 변혁시키는 것이 불가피함을 말하고, 후자는 정치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이행하면서 기존의 제도적 틀내에서 갈등의 해결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민 뿔란짜스 외, 계급분석의 기초이론(박준식·한형옥 역, 세계, 1986), pp.63- 73, 266-282 참조. 나델, 풀란차스 외, 사회계급론(박현우 역, 백산서당, 1986), pp.9-12 참조.

72) 진보라는 자본주의의 세속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된 것은 과학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홉스봄, 438. 또 개인주의의 확산에는 금전적 합리주의와 기술적 합리주의의 결합이 놓여 있다. 화폐뿐만 아니라 기술도 역사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힘이다. K. Burke, A Grammar of Motives, pp.93-95,115 참조. 우길은 루쏘의 소설을 읽고 크게 매료되기도 하는데, 루쏘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로 패러디함으로써 도구적 이성을 비판한 바 있어 흥미

않다. 그의 <봄>은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한다는 자유주의적 자기발전을 암시한다. 『대하』의 형걸은 전통적 사회규범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사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중시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쌍네의 비관에 대해서도 상대적 가치의 문제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박성권 등의 부르주아를 관념적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근본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들세대의 이러한 변화에서 공통되는 것은 개인성의 추구이다. 이는 전통적인 제도나 역할로부터 해방된, 투명한 자아의 추구이며 근대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통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작품에는 사회적 제 힘에 의해 주체가 형성된다는 관념이 부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적 메세지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보다 개인의 도덕적 변화, 개인의 자발성에 대한 강조라고 하겠다. 이 메세지는 바로 중산계급의 이데올로기, 곧 개인주의이다[73]. 따라서 그들은 가족의 계보적 전통을 거부하고 개인주의를 대체된 권위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이나 평양 등 대도시로 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농경문화의 반복적인 생산주기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가족 집단이나 지역적 고립에서 벗어나 더넓은 세계로 가려는 공간 이동의 열망은 공간 장벽이 붕괴되어 가는 근대사회의 한 특징을 반영한다. 공간의 장벽이 붕괴될 때, 많은 관심사를 제공하는 신문, 철도, 전신 등이 옛것에 대한 존경심을 대신하며 이로써 개인의 전변도 자재롭게 만든다. 개인은 옛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혁명을 시도하고 새로운 도덕을 탐구해야 한다[74]. 그들

롭다. 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Basil Blackwell,1990), p.19.

73) 중산계급의 개인주의는 개인과 집단을 대립시키고 집단보다 개인에게 우위를 두면서 개인간의 사적 관계를 모색한다. 집단은 개인을 억압하고 개인의 정체를 해체한다는 것이다. L. J. Davis, 같은 책, pp.118-120 참조. 말을 바꾸면, 아들세대의 변화가 사회사적 시간보다 개인의 전기적 시간에 과중하게 의존한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탑』을 제외하고 연대기적 전개가 불충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74) D. Harvey, 같은 책, PP.273-274.

의 부친은 이런 상황 아래에서 몰락하거나 혹은 상승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유연한 사적 삶과 황홀한 꿈을 허용하는 즐거운 미궁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주의 자체가 탈신비화되어야 할 부정적 이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도시에서의 개인주의적 삶이란 이질적인 경험을 통해 개인의 전투적인 자발성을 자극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유년시절 우길이 보여준 강한 승벽(38), 체조를 잘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석림의 <승벽(勝癖)>(96), 강건하고 포학스러운 형걸의 육체 등은 삶의 투쟁을 위한 준비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봄』에서 강조된 운동처럼, 그들의 강인한 승부욕은 개인적인 성공과 상층계급의 주도권을 촉진시킬 용기와 남성다움을 의미할 수 있다[75]. 그래서 상대를 정복했을 때의 쾌감과 자기성취의 기쁨을 얻고 근대세계에서의 적자생존의 법칙을 배울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은 부르조아의 공적 이데올로기로 이동[76]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이 근대적 기반 위에 출현하는 경제적 집단 곧 부르주아의 유기적 지식인[77]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75) 라쉬는 운동이 화려한 無用형식으로 고양되지 못하고 특정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타락으로 본다. 예를 들어 새로운 민족부르조아나 지방의 엘리트, 제국주의자는 승리의 의지를 주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능력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C. Lasch, Culture of Narcissism(W. W. Norton & Company, Inc., 1979), PP.200-201 참조.

76) 이는 전투적인 부르조아 사상의 본질을 은유하는 말로, 생존의 최적자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지배자가 되어야 증명된다. E. J. 홉스봄, 같은 책, pp.179-180 참조.

77) 그람씨의 분류를 따르면, 전통적 지식인은 정치 사회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적 우월성으로 한 사회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미 존재하는 지식인이다. 유기적 지식인은 산업적 기반 위에 출현하여 소속된 특수한 사회계급의 이념과 열망을 지도하는 정치지도자이며 조직가이다. 부르주아의 유기적 지식인은 산업기술자, 정치경제 전문가, 새로운 문화와 법률의 조직가이며, 노동자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은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지도자 조직가로 역사의 운동방향을 이해한 지식인, 노동계급에 의해 지도자로 봉사하도록 발탁된 지식인이다. 이에 대해 나델, 폴란차스 외, 같은 책, pp.367-384 참조. A. S. 사쑨, 그람시와 혁명전략(최우길 역, 녹두, 1984), pp.109-111 참조. J. Joll, 그람시, 그 비판적 연구(이종은 역, 까치, 1984), pp.126-128 참조.

이들이 역사의 운동 방향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근대적 자본주의의 방향일 것이다. 변화하고 성숙하는 아들세대는 시대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상하는 부르주아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부르주아의 반봉건주의는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이행하는 시기의 혁명적 진보적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이미 역사적으로 논증된 것처럼, 부르주아는 그 이데올로기가 표방하고 약속한 해방과 자유, 평등의 이상을 대중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층과의 동맹을 거부하지 않았던가[78]. 또 그 배반의 극단적 형태가 제국주의의 침탈이 아닌가. 물론 베버적인 인식 틀로 옮겨간 작가에게 계급모순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적자생존의 논리가 귀결하게 마련인 폭력적 파시즘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카프작가였던 한설야, 이기영, 김남천이 아들세대의 삶을 중심으로 더 이상 작품을 계속할 수 없는 곤경이 있다. 그들은 개별 텍스트의 차원에서 파시즘의 불합리한 폭력에 상상적으로 대결하기 위해 아비세대를 공격한다. 이것이 집합적인 담론 차원에서 봉건(야만, 비합리)과 근대(문명, 합리)의 이념적 형식을 형성하고, 후자에 우월성을 부여함으로써 새것 혹은 진보의 이념소를 가치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그 이념소는 적자생존의 진화론 사상과 닿아 있어 자율적 개인의 생존 추구가 타자를 억압하거나 희생시킬 수 있다는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 모순이 비합리적 야만적인 파시즘으로 발현된다는 것이 자명해진 만큼, 그들이 작품을 완결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봉건과 근대,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념적 사고가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귀결이다. 이 때문에 30년대 후반의 가족사소설은 특정한 땅 조각에 구속 받지 않는 자본주의(제국주의)의 진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항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게 구성되고, 이런 억압이 그들 소설의 내적 논리라고 하겠다[79].

---

78)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하층계급에 대한 저주요 한 집단의 이기주의의 형식이라 할 허위의식으로 논증되었다. 콜라코프스키 외,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임지현 역, 한겨레, 1986), pp.91-92, 136. C. Butler, Interpretation, Deconstruction, Ideology(Oxford Univ. Press, 1984), pp.110-111 참조.

79) 물론 계급투쟁 혹은 반파시즘 인민전선이라는 대안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이들 작가가 인식의 지평을 이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9년 소련과 독일 사이의 불가침 조약은 그 대안의 실효를 입증한다. 벤야민의 논지를 따르면, 파시즘의 반대자들이 진보, 기술 발전에 의한 자연 정복을

작품의 이런 내적 논리 때문에, 『탑』은 신흥계급의 상층계급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다루면서도 빈농하층의 이익에 대한 신흥자본의 위협을 거의 드러내지 못한다. 『대하』의 박리균 형제나 『봄』의 유선달 역시 신분으로서의 귀속적 성격이 퇴조한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이 문제를 희석시킨다. 전통풍속 묘사도 이들 소설의 내적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 풍속들은 빈농하층민이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도록 삶을 매개하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지시적 차원에서 도식적으로 나열 분류된, 개개 풍속의 세목화에 불과하다[80]. 그렇기 때문에 가족 외적 인물은 풍속보다 더 먼 배경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사소설의 진보의 이념소는 부르주아의 목소리를 매개하고, 빈농하층민의 목소리를 억압한다고 하겠다. 하층빈민의 목소리는 작가의 정치적 무의식에 의해 억압된 역사의 모순이며 텍스트에 부재하는 타자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30년대 후반기 가족사소설은 침략적 자본주의인 일제파시즘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무능하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한설야의 『탑』, 이기영의 『봄』, 김남천의 『대하』를 중심으로 하여 1930년대 가족사소설의 정치적 무의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변화하는 현실

규범으로 삼아 파시즘에 맞서고 있지만 이는 기술주의적 특성을 지닌 파시즘과 동궤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로의 연속적 발전 모델을 지닌 파시즘의 내적 모순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되거니와, 가족사소설의 작가들이 근대(문명, 합리성)을 규범으로 삼고 있는 한, 비록 그들이 파시즘에 충실하더라도 현실을 돌파할 계기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족사소설은 전근대와 결별할 뿐, 가족 밖의 고통받는 과거의 대중과 어떤 연관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터 벤야민, 문예 비평과 이론(이태동 역, 문예출판사, 1987), pp.298-300 참조.

80) 조건적 묘사란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가정법처럼 가능한 삶 혹은 변화가능성을 보이는 것이고, 지시적 묘사란 전체 상황의 추이보다 개별 상태를 초연한 입장에서 세목화하고 따라서 변화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임슨은 전자를 리얼리즘의 서사전략으로, 후자를 자연주의의 서사전략으로 파악한다. F.Jameson,The Political Unconscious, pp.165, 189-190 참조.

에 직면하여 가족구성원이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며, 父子관계가 어떻게 지속 혹은 변화하는가를 살피고, 계보로부터 이탈하는 아들세대의 욕망이 궁극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세대의 시대의식을 살펴본 결과, 『탑』에서는 봉건적 가족이기주의, 『봄』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봉건의식과 불구적인 개화의식, 『대하』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합리주의라는 세 유형이 드러났다.

둘째, 이들 부세대가 직면한 문제상황은 봉건적 질서와 전통적 관습을 해체하는 새로운 개인주의 혹은 합리적 권위에 기초한 금권의 부상이었다. 이런 현실에 대응함에 있어 『탑』의 박진사는 과거로 퇴행하면서 몰락하고, 『봄』의 유선달은 유기적 가치로 맞서나 탐욕적 개인주의에 패배하며, 『대하』의 박성권은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금권지배자가 된다. 이같은 결과는 각자가 지닌 의식의 결과라 하겠다.

셋째, 이들 가족사소설에서 父子는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드러낸다. 그러나 『탑』의 경우 가묘로 상징된 연속성이, 부자 갈등이 덜 현저한 『봄』의 경우 근대지향적인 권위에 의한 정신적 유사성이, 『대하』의 경우 재산으로 상징되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계인물의 반계보적 일탈도 심각한데, 그들의 행위가 낡은 권위를 대체하여 새로운 권위로 충성을 이동함으로써 자멸을 넘어 선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들세대가 새롭게 지향하는 바를 살펴본 결과, 『탑』의 우길은 예술로의 편향과 내밀한 사적 삶을 추구하고, 『봄』의 석림은 식민주의자에 가까운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며, 『대하』의 서자 형걸은 이동하는 욕망을 반성함으로써 부르주아의 탐욕에 대한 윤리적 관념적 비판을 보인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내용의 가족사소설은 파시즘적 사회 모순의 상상적 해결로 보이는데, 그 상상적 서사화 과정에 숨겨진 정치적 무의식은 다음과 같다. 가족사소설은 맑시즘적 인식 틀로부터 베버주의로 이동한다. 아들세대의 계보 이탈은 합리주의를 향한 반응이며, 그 결과 가족사소설은 봉건(비합리, 야만)과 근대(합리, 문명)라는 이원대립성을 이념적 사고의 궁극 형식으로 한다. 이원대립은 새것 혹은 진보를 이념소로 하며, 이 이념소는 빈농하

층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목소리를 매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제 파시즘에 대해 이념적으로 무기력하다고 판단된다.

자 료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12권 『봄』(태학사, 1988)
제삼한국문학 5권 『탑』(수문서관, 1988)
제삼한국문학 9권 『대하』(수문서관, 1988)

참고논저

강옥희, <김남천의 장편소설과 『대하』>(상명여대 석사논문, 1991)
구인환 외,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삼지원, 1990)
구모룡, <한국 근대 문학유기론의 담론분석적 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92)
근대사연구회 편,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제문제(하)(한울, 1987)
김남천, <작중인물지>(『조광』, 40.11), <작품제작과정>(『조광』, 39.6)
김동환,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서울대출판부, 1980)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민음사, 1994)
김상도, <거세된 현실과 방법의 포기>(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 43집, 1991)
김성수, <이기영 소설 연구>(성균관대 박사논문, 1991)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1(일조각, 1970)
김윤식, 염상섭연구(서울대출판부,1987 재판)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론(한샘, 1988)
김재남, 김남천문학론(태학사, 1991)
김정자 외,한국문학에 있어서의 집 그리고 가족의 문제(다래, 1992)
김홍식 외, 『대한 제국기의 토지제도』(민음사, 1990)

류종렬, <1930년대말 한국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91)
마연정리 외, 갑신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청아, 1988 3판)
박병호,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서울대출판부, 1985, 3쇄)
박헌호, <30년대 후반 '가족사연대기'소설의 의미와 구조>(『민족문학사연구』 4호, 1993)
박홍배, <이기영의 장편소설 연구>(동아대 박사논문, 1993)
서경석, <한설야 문학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2)
서기원 외, 한국의 지성(문예출판사, 1977 중판)
송하춘, <1930년대 후기 소설 논의와 실제에 관한 연구>(『세계의 문학』, 1990 가을호)
송호숙, <한설야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89)
신상성, 한국소설사의 재인식(경운출판사, 1988)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한국연구원, 1979)
신희교, <『탑』의 인물유형>(『어문논집』 24·25 합집, 고려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5)
안병태, 한국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백산서당, 1982)
안함광, <문학의 주장과 실험의 세계>,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 VIII(태학사, 1990)
양윤모, <김남천의 『대하』 연구>(고려대 석사논문, 1991)
오성호, <닫힌 시대의 소설>, 『봄』 해설(풀빛, 1989)
오양호, <김남천의 『대하』론>(『동서문학』, 90.5)
원은영, <가족사연대기소설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유종호, <염상섭의 『삼대』>, 이재선·조동일 편, 한국현대소설작품론(문장, 1981)
윤석달, <한국현대가족사소설의 서사유형과 인물유형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1)
이덕화, 김남천연구(청하, 1991)
이상경, <이기영 소설의변모과정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2)
이상일 외, 한국사상의 원천(박영사, 1977 재판)

이이화, 한국 근대인물의 해명(학민사, 1985)
이재선, 한국문학의 해석(새문사, 1981)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1979)
이주형, <1930년대 한국장편소설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88)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청아출판사, 1984 재판)
이효재, 가족과 사회(경문사, 1983, 개정초판)
장관진, 한국민요에 나타난 가족의식 연구(세종출판사, 1989)
장철수, 한국 전통 사회의 관혼상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정석종,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84 중판)
정호웅 외, 장편소설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열음사, 1993)
조남현, <『대하』 1·2부 재해석>(『소설과 사상』, 93 봄호)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지식산업사, 1988)
진덕규 외, 19세기 한국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연구>, 『아세아연구』 50호(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최유찬, <1930년대 역사소설론연구>(연세대 석사논문,1983)
한승옥,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민음사, 1989)
현길언, <닫힌 시대와 역사에 대한 소설적 전망>(『세계의 문학』, 88 겨울호)
황국명, <1930년대 가족사소설의 이데올로기 지향 연구 - 채만식의 가족서사를 중심으로>(『인제논총』 8권 2호, 1992)
황국명,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인제논총』 9권 2호, 1993)
황윤철,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대구어문논총』 9집, 대구어문학회, 1991)

A. Fletcher(ed.), The Literature of Fact(Columbia Univ. Press, 1976)
A. S. 사쑨, 그람시와 혁명전략(최우길 역, 녹두, 1984)
아민 빨란짜스 외, 계급분석의 기초이론(박준식·한형옥 역, 세계, 1986)
아지자 외, 문학의 상징, 주제사전(상)(장영수 역, 중아일보사, 1986)

C. Butler, Interpretation, Deconstruction, Ideology(Oxford Univ. Press, 1984)

C. Lasch, Culture of Narcissism(W. W. Norton & Company, Inc., 1979)

C. Prendergast, The Order of Mimesis(Cambridge Univ. Press, 1988)

D. Carr, Time, Narrative and History(Indiana Univ. Press, 1986)

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Basil Blackwell, 1990)

E. J. 홉스봄,자본의 시대(정도영 역, 한길사, 1983)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Metheun & Co. Ltd., 1981)

F. Jameson,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여홍상·김영희 역, 창작과 비평사, 1984)

G. Bataille, Vision of Excess(Univ. of Minnesota Press, 1985)

가스똥 바슐라르, 물과 꿈(이가림 역, 문예출판사, 1980)

강신중·이상률 편역, 마르크스냐 베버냐(홍성사, 1986 3판)

G. 짐멜, 돈의 철학(장영배, 안준섭, 조희연 역, 한길사, 1983)

J. Dollimore & A. Sinfield(eds.), Political Shakespeare(Manchester Univ. Press, 1985)

J. Hardin(ed.), Reflection and Action(Univ. of South Carolina Press,1981)

J. M. 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Univ. of Minnesota Press, 1984)

J. Joll, 그람시, 그 비판적 연구(이종은 역, 까치, 1984)

K. Burke, A Grammar of Motives(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K. Burke, 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Univ.of California Press,1973)

칼 뢰벤슈타인, 현대적 관점에서 본 막스베버의 정치사상(정문길 역, 삼영사, 1980)

콜라코프스키 외,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임지현 역, 한겨레, 1986)

L. J. Davis, Resisting Novel:Ideology and Fiction(Metheun & Co. Ltd., 1987)

M.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Univ. of Minnesota Press, 1984)

M. Eliade,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Harper & Row, 1975)
나델, 풀란차스 외, 사회계급론(박현우 역, 백산서당, 1986)
N. O'Sullivan, The Structure of Modern Ideology(Edward Elgar, 1989)
P. D. Tobin, Time and the Novel(Princeton Univ.Press,1978)
R. 브루베이커, 합리성의 한계(나제민 역, 법문사, 1985)
R. Boyne and A. Rattansi(ed.), Postmodernim and Society(Macmillan Education Ltd., 1990)
R. Girard, Violence and the Sacred(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7)
R.Wilson, R.Dutton(eds.), New Historicism and Renaissence Drama (Loongman Group UK, 1992)
S. 오쏘프스키, 사회의식과 계급구조(정근식 역, 도서출판 인간, 1981)
T. Eagleton, The Ideology of the Aesthetics(Basil Blackwell, 1990)
발터 벤야민, 문예 비평과 이론(이태동 역, 문예출판사, 1987)
W. M. Frohock, Image and Theme(Harvard Univ. Press, 1970)